

연수구, 의·약 단체와

맞춤형 건강강좌 추진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주민에게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의·약 단체와 협력해 ‘맞춤형 건강강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27일 연수구는 연수구 의·약 단체(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건강강좌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수구와 의·약단체는 각 분야 전문 의료인이 참여하는 건강강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좌는 이달 26일(목) 오전 10시 연수구 제2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전제군 플러스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낙상, 척추골절, 관절질환, 뇌출혈 어떻게 대비할까?’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좌는 연수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령층을 비롯해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은 9일부터 연수문화포털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문 의료인이 참여하는 계절별 건강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좌 참여를 희망하는 연수구민은 연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032-749-8044)로 문의하면 된다.

남동구,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

축 추진...‘구민 안전망 강화’

남동구는 화학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전했다.

우선 구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방재함 설치를 진행했다.

컨테이너 형태의 방재함 내부에는 보호복, 흡착제, 중화제 등 다양한 방재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 남동산단에 산재되어 있는 660여 개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위치, 취급물질 종류 등을 반영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화학물질 관리 지도 구축사업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화학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방재 장비 확충, 대응 역량 강화, GIS 기반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원도심 교통효율성 대폭 향상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 평균속도 29%·지체시간 47% 개선

시 교차로·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편의 향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원도심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 환경이 열악한 강화군, 옹진군(영흥도), 중구 및 동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교차로 25개소 ▲좌회전 감응신호 4개교차로

구축과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81개 교차로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성과로는 상시 교통정체 구간이었던 강화 갑곶초사부터 강화경 기장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차로 12개소를 구축하고,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교통 신호주기를 최적화해 적용한 점이 꼽힌다

그 결과, 양방향 평일 기준 평균 주행 속도는 29.3% 향상돼 시속 28.3km에서 36.6km로 개선됐으며, 양방향 평균 지체 시간도 47.6% 감소해 4분 30초에서 2분 21초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차량이 감지될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강화 1개 교차로와 영흥도 3개 교차로에 적용됐다.

그 결과 해당 교차로의 평균 지체 시간은 38.4% 감소해 15.1초에서 9.3초로 개선됐으며, 불필요한 좌회전 신호 부여 횟수도 47.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강화 64개 교차로, 중구 14개 교차로, 동구 3개 교차로 등 총 81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방 신호등 잔여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내비게이션), 티맵, 현대·기아차량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교차로 진입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하고, 광고 노출에 따른 시민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하린 기자

옹진군 <옹진자연물>, 설맞이 할인행사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9일,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진행 중인 온라인 쇼핑물 ‘옹진자연물’의 설 맞이 할인 행사를 소개하며, 불필요한 좌회전 신호 부여 횟수도 47.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하고, 광고 노출에 따른 시민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행사 기간 동안 ▲전 상품 20% 할인 ▲무료 배송 혜택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3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 쿠폰 제공 등 실질적인 구매 혜택이 제공되어 명절 선물 수요층과 실속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특히, 옹진군 특산물인 다시마, 갯나리액젓, 꽃게 육수팩, 구운 김, 생표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증정한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민의 정성과 자연이 깃든 정경 먹거리를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명절 전 마지막 배송일인 2월 10일 이전에 주문하셔서 옹진의 맛을 소중한 분들께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할인 행사는 2월 18일(수) 17시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옹진자연물 홈페이지(www.ongjinmall.c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84동 지원



영평영채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관내 1,000㎡ 이상의 농지 혹은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신선 농산물(과수, 채소, 화훼 등)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27일까지 사업대상지(설치 장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읍·면별 심의와 최종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보급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기후 변화와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강화군 농산물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동구,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독서지도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2월~11월까지 가정방문 기초학습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주 1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은 국어, 수학 등 기초학습

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미취학 아동에게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문해력 발달을 돕는다.

는 11월까지 10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사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문 교육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탐구 질문 중심의 수업 설계 도움자료’ 개발·보급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대’ 국외 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현장의 질문 중심 배움과 탐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탐구 질문 중심의 수업 설계 도움자료’를 개발·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핵심 문장, 핵심 질문, 탐구 질문의 이해 ▷탐구 질문 중심의 교수·학습 설계 ▷교과별, 학년별 탐구 질문 중심의 수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원 및 차시 단위로 교수·학

습 설계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과정 분석부터 평가 설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 효성을 높여 학생의 탐구 질문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고자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새 학기 수업 설계는 학생들의 배움의 싹을 틔우는 밑거름과도 같다”며 “탐구 질문 중심의 수업이 현장에 안착

하여 학생들의 배움이 깊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7일 항공우주산업학원원에서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대’ 국외 연수의 성과를 공유하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수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현지 직업교육 및 산업 현장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는 연수 참가 학생과 학부모, 인솔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는 국외 연수 운영 결과 보고와 우수 사례 발표, 참가 학생 프로젝트 및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연수 준비 단계부터 현지 활동, 사후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과 연수의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체험한 직업교육 운영 방식과 산업 현장의 특징을 소개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 및 향후 진로 방향과 연계해 발표했다.

심하린 기자

